

공동체 소식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 11/21(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 11/22(수):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 11/24(금): 성 안드레아사제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

■ 11월 로렌스 공소 미사
- 일시 : 11/25(토) 오후 5:30.

■ 2018년도 매일미사 책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2/10(주일)까지, 전례부원에게 주문.
- 가격 : 60달러/년.

■ 2017년 성탄 행사 안내
주제: "나눔"(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 기쁨 나눔:12월 24일 성탄 성야미사 후, 성당 친교실.
- 기도 나눔:12월 25일 성탄 미사 후, 성당 친교실.(대림시기 동안 가정별 기도 나눔)
- 재능 나눔:12월 25일 성탄미사 후, 성당 친교실.(재능 기부+재능 잔치)
* 구체적인 행사 신청, 준비, 참여 관련 내용은 별도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통신성서, 통신교리 신학원 학생 모집.
- 내용: 성당 게시판 참조.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91	217	166	88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 주	김대연 요셉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명희, 정연숙, 박동희
차 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 행사 제2조

헌금 봉사자

금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12	55명	250달러	490달러
(총 3세대)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1월 19일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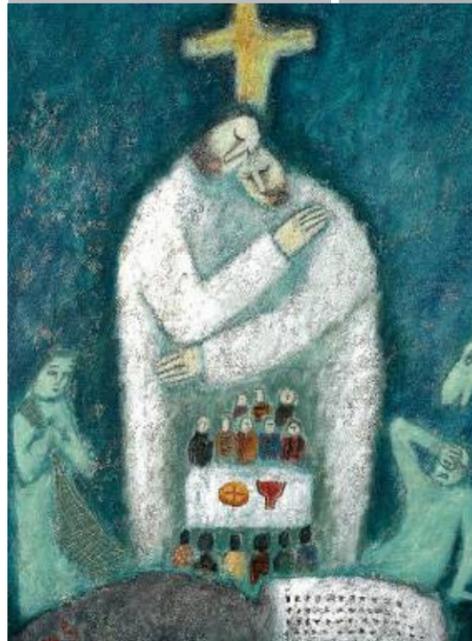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와 은총의 모든 복을 사람의 손에 맡기시어, 우리가 좋은 뜻을 세워 아버지의 섭리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돌아오실 아버지를 깨어 기다리는 충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그림 묵상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14,19,23B)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 보물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 보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성실한 종은 주인과 함께 큰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장언의 말씀입니다. 31,10-13,19-20,30-31
<훌륭한 아내는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 독 서 : 사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5,1-6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4-30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준비된 이만이 하늘나라를 얻으리니

지난 주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다시 오시기 전에 등에 채울 기름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탈렌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복음에서 듣게 되는 탈렌트 비유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맡겨진 탈렌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등만 가지고 있으면서 등에 채울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탈렌트를 땅에 묻어 두어서는 안 되고,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탈렌트를 이용해 더 많은 탈렌트를 모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탈렌트란 금이나 은 등을 측정하는 무게 단위로 대략 28~36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화 한 탈렌트는 복음서가 저술되던 시기의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 곧 숙련된 노동자의 6,000일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숙련공의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잡으면, 오늘날 기준으로 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정도 되니 한 탈렌트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영어로 재능을 의미하는 ‘탈렌트’가 이 말에서 나온 것을 두고 탈렌트를 각자가 받은 재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복음에서 임금이 맡긴 재산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재물, 은총, 은혜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 받은 빛들, 곧 우리가 용서 받은 죄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태 18,23-35).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임금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다섯 탈렌트를, 어떤 이에게는 두 탈렌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종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탈렌트마저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과 다섯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탈렌트를 더 벌어야 하지만, 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한 탈렌트만 더 벌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조건 하나님에게서 많은 탈렌

트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은 아니라 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각자가 그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재물을 나누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탈렌트가 용서 받은 양이라고 말한다면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용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굳이 많은 탈렌트가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나누어 받은 종들은 임금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 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그 돈을 활용하여 열심히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지난 주 복음의 기준에 따르면 자신에게 맡겨진 등에 채울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매우 성실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작은 일’에 성실한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늘 나라에서 그들에게 맡겨질 자리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이제 그는 주인과 함께 하늘 나라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다섯 탈렌트를 받은 종처럼 열심히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는 비록 두 탈렌트밖에 벌지 못했지만, 주인은 다섯 탈렌트를 번 종과 같은 칭찬을 주십니다. 그도 다섯 탈렌트를 번 이와 마찬가지로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며, 주인과 함께 하늘 나라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모진 분이라고 오해하며 걱정에 빠진 나머지 한 탈렌트를 땅에만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한 탈렌트도 부풀릴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부풀렸어야 했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가진 것마저 빼앗겨 버리고,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 운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졌던 그 탈렌트는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은 다시 한 번 하늘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고, 자신이 받은 만큼 내어놓으며 끊임없이 합당한 준비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평신도 회년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 주일인 11월 19일부터 내년 평신도 주일인 2018년 11월 11일까지 1년을 평신도 회년으로 지냅니다. 평신도 회년을 더욱 뜻깊게 지내도록 회년이 무엇이며 평신도 회년을 어떤 정신으로 지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년의 유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레째 되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지냈습니다.(탈출 23,11 참조) 이 안식년에는 이웃이나 동족에게 꾸어준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신명 15,1-2 참조)

회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후 맞는 50년째의 해를 말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회년에는 안식년 규정의 의미가 더욱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회년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빛나도록 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회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하고 선언하셨고 이를 당신의 말씀과 행동으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실현하셨습니다.

2 회년의 정신

회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나아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회년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영성적 차원을 지닙니다. 평신도 회년을 시작하면서 평신도로서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이며 그 자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합시다. 이 회년이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9,2)는 하나님 말씀과 달리 거룩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해, 미워하고 원수진 이웃과는 용서와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는 해,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본래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유와 기쁨과 은총의 삶을 사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3 한국 평신도 회년, 어떻게 살 것인가?

- 주제: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평신도 회년’을 맞아 새로운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서도록 합시다.)
- 기간: 2017년 평신도 주일(11/19)~2018년 평신도 주일(11/11)
- 평신도 회년 살기
 - 1 정신운동: 회년의 정신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
 - 2 신심운동: 복덕 형제들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 3 실천운동
 -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
 - 회년의 정신을 반영하는 구체적 실천 운동
(쉬는 교우 회두 권면, 이웃과의 화해, 가난한 사람 돌봄 등)



될성부른 나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처음 시작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면
그 눈빛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마태 25,21)

